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애가 3:22-23)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겨울은 당연히 추워야 하는 것이 맞지만, 더운 나라로 알려진 멕시코에서의 올 겨울은 유난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이 없이도 담요와 두터운 옷으로 겨울을 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냉난방시설이 필요함을 느끼며 성도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변화와 어려움 중에도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인해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Kids Cafe>



코로나-19 이후 모이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이때에,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들을 시도해 보며 개척 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거리 전도로 시작해서 공원에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 게임과 간이 축구 등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간단하게 복음도 전하는 복된 시간을 통해 어린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섬기기로 작정하고 수고하는 빅토르와 루비따(Victor & Lupita)부부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뿐 아니라 어린 영혼을 위한 전문사역자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현지목회자들과 함께...>

현지 목회자들과 모여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나눔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오아시스(Oasis) 현지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교회를 돌아가며 섬기고 있는데, 이 중의 한 가정과 다른 목회자 부부, 그리고 후임사역자로 헌신한 하비엘&카르멘 사역자 부부와 함께 미국에서 열린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소원을 담고 돌아올 수 있었고, 영혼구원과 제자만드는 일을 위해 헌신을 각오하고 결단한 이들로 인해 감사가 있고, 더 많은 목회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처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매번 인디오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10시간씩 떨어진 마을에 가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점검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위험과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

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점검하고 텐트와 침낭을 비롯해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우아나과슬레 마을에서 콘스탄시오&레티 목회자부부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머물고 다음 마을로 갈 계획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목적이한 인디오마을로 가는 길목을 마피아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긴장과 상당한 위험이 있기에 이번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인디오 형제들의 만류에 고민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구했는데... 20년이 넘는 인디오 사역 중에 처음으로 발길을 돌리켜 과달라하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치안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 그리고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동역자들과 중보를 요청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멕시코 중부의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인디오 마을을 20년 넘게 다니고 있지만 인디오 청소년들과 목회자가정들을 더 깊게 섬겨주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늘 컸는데, 귀한 헌신을 통해 우아나과슬레 마을에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작은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인디오마을의 예배당을 건축할 때마다 자재의 이동문제, 물, 전기 등으로 큰 도전이자 숙제였는데, 이번에는 청소년들이나 사역자가족들을 위한 숙소까지 지어야 하기에 더욱 큰 헌신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기에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12월부터 콘스탄시오&레티 사역자부부가 인디오마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허름한 자신의 집 마당에서 모임을 가지며 작은 공동체를 시작한 일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열심을 가지고 헌신할 것을 재촉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손과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소원하며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 1) 매 순간 주님을 더욱 느껴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 2) 우아나과슬레 마을에 세워질 예배당과 선교센터 건축에 참여할 동역자들과 교회들을 통해 필요가 넘치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건축되어지도록
- 3) 교회에 4개의 에어컨을 주심에 감사가 있습니다. 필요한 3-4개가 더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4) 하비엘, 카르멘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세워져 가며 사역 이양을 위한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 5) 가족의 건강과 안전, 아이들 학업에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멕시코에서 2024년 3월  
추기성, 정지연선교사드림